

원산 소식

제29회 한·일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 개최

201명 참가, 논문 26편 발표



한국원산과 일본원산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가 금년도에 제29회째를 맞이하여 한국 측 원자력관계자 174명과 일본 측 관계자 27명 등 총 20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9일~3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일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는 기술 세션으로 「원자로 설계, 제작 및 건설」, 「방사성폐기물과 환경」, 「원자력 인

재 양성」, 「중소형 원자로 개발 및 미래 노형」 등 4개 분야와 패널 토론 세션으로 「원전 계속운전」의 1개 분야, 그리고 전문가 토론세션으로 「원전 운전 경험 Feed-Back 및 정비 최적화」의 1개 분야, 특별 세션으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의 지진 영향과 내진 설계」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어 한국에서 12편, 일본측에서 14편씩 총 2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세미나 첫날인 10월 29일 오전에 열린 개회 세션에서는 한·일 양측 대표의 개회 인사가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방국진 상근회장이,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장인 타쿠야 핫토리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이사장이 양국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개회 인사 후에는 한·일 양측 인사의 기조 강연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이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장인 타쿠야 핫토리 JAIF 이사장이 「일본의 원자력 현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특별 강연에서는 (사)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의 나소원 총재가 「한국에서의 원자력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개회 세션 후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원자로 설계, 제작 및 건설」이라는 주제로 한국 측에서 3편, 일본 측에서 2편씩 모두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오후에 개최된 제2세션에서는 「방사성폐기물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한·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원전 계속운전」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 세션이 열렸는데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주제발표 후 패널리스트와 발표자의 합동 토론이 있었다.

10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3세션에서는 「원자력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제4세션에서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 및 미래 노형」이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각각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의 지진 영향과 내진 설계」라는 주제로 일본 측의 특별 세션이 있었는데 일본 동경전력(주)측에서 주제와 관련된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원전 운영 경험과 Feed-Back 및 정비 최적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는데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 발표 후 관련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열린 폐회 세션에서는 한·일 양측 대표의 폐회 인사가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방국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장인 타쿠야 핫토리 일본원자력협회 이사장이 폐회 인사를 하였다.

한편 세미나 종료 후 일본대표단은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울진원자력발전소, 창원 두산중공업(주) 공장,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부지 등을 시찰한 후 11월 3일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제8회 한국원산 회원사 원자력 산업 시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8회 원자력 산업 시찰 행사가 11월 8일~9일 양일간 있었다. 19개 회원사에서 30명이 참석한 이번 시찰은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월성 2호기 내부와 홍보관 등을 둘러보고 인근의 석굴암과 불국사를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2007년도 추계 체련대회 개최

한국원산 사무국은 11월 6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소요산에서 산행과 함께 2007년도 추계 체련대회 행사를 가졌다. 산행은 일주문-자재암-하백운대-중백운대-상백운대-칼바위-나한대-의상대(해발 586m)-공주봉-옛절터-일주문 코스로 4시간이 소요되었다. 산행 후에는 팀별 족구대회를 열고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